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1월 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기도하여 응답 받으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변지원 -

할렐루야!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와 함께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친정어머님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성가대원으로서 교회학교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찬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소년 사춘기가 되자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생활도, 학교에서의 생활도 소극적으로 행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습니다. 것처럼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19살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입시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매주 금요일예배에도 참석하여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소리 내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저를 끝까지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시고 또 불신가정으로 시집을 오셔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무척 힘드셨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 주신

어머니가 지금도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마음과 힘을 다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줄곧 채워 주셨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끄럼을 많이 타는 성격을 지닌 저였지만 배우가 되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실기시험 준비를 하였지만 그해에 지원하여 시험을 치른 대학교에 모두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전 같으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하고 쉽게 포기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굳은 의지로 재수를 결심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 년을 더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100:1에 달한 경쟁률을 뚫고 원하던 대학교 연기예술편입학과에 정시합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무척 분주하고 활동이 많은 학부생활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봉사는 내가 자원하고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며 성령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저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교회학교에 예배드리러 오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예쁘고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과 함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며 힘껏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우리 교회 뮤지컬 팀(GNTC 뮤지컬)에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고 2019년부터 봉사하였습니다. 배우와 스태프 등 함께 하는 단원들과 새 뮤지컬을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설레고 즐거웠고, 매 공연 때마다 성도님들을 비롯한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그분들에게 신앙적인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저에게도 무한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뮤지컬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도 올리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만을 다 마치고도 멈추지 않는 산후 출혈로 인해 저는 응급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로 출혈부위를 처치하고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염려가 많이 되었고 또 이렇게 바로 수술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분만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9개월 동안은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독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시는 시부모님 두 분과 저희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중심의 생활을 한 것 또한 감사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더욱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출산하고 초기에는 아기 때문에 봉사는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의 귀중함을 생각하고 결심하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저희 부부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수요일예배 성가대와 뮤지컬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중심, 교회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겼더니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남편 또한 직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집사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 부족했던 저를 그동안 단련시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머지않아 저의 친정 아버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등불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자세로 늘 깨어 있어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에 힘쓰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님으로 인해 한없이 행복한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5단원 : 예수님의 가르침)

(제30과)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 본문 : 마태복음 13:24-33
- 요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
- 찬송 : 399장(새찬송가 546장), 313장(새찬송가 524장)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7:20,21).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은 그만큼 신비로운 곳이며, 한편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신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이 공과에서는 특별히 천국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국 비유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과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배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1. 천국 복음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자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썩어나 나옴에 타서 말랐으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었으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실할 수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었기 때문에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잠시 견디다가 신앙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풍성하도록 결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며, 어떠한 역경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헌신된 마음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그의 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 천국 복음은 마치 겨자씨나 누룩과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겨자씨는 보기에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일단 자란 후에는 말을 탄 사람의 키 높이만큼 자라서 각종 새들이 안식할 수 있는 관목이 됩니다.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나 후에는 크게 확장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간 세상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이 음식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불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지면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표로 바뀌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누룩처럼 번져서 중생을 거쳐 성화(聖化)를 추구하며 살도록 주장하게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면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해 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 복음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은 성도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3. 천국 복음은 마치 감추인 보배나 진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남의 밭에 파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으며, 또한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보고 가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복음의 귀한 가치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소유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사는 비유는 찾으려고 노력하던 때에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을 알게 되는 경우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하여, 매스컴 선교를 통하여, 친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우입니다.

또, 어떤 자는 찾고 구하던 중에 믿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던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가 우연이거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찾았을 경우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이나 진주를 사듯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천국 복음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자존심도, 명예도, 물질도, 지식도 천국 복음보다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보화를 캐내어 자기 것으로 삼은 우리는 분명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명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신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